

## 이슈분석

###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

소속 및 직책: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

성명: 이유신

#### □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사이에 외교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

- 지난 3월 러시아 국적의 조종사 블라디미르 사도브니치 (Vladimir Sadovnichy)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중 타지키스탄에 불시착.
- 이후 타지키스탄은 당국은 사도브니치를 밀수 혐의로 구금.
-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11월 타지키스탄 법원은 사도브니치에게 8년 6개월 이라는 중형을 선고.
- 이 선고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양국 간에 외교전이 시작 (참고로 선고 이전에 조종사 사건은 양국 간의 중요 쟁점 사항이 아니었음).
- 이 외교전으로 인해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.
- 한 관찰자는 이 외교전에 대해 언급하며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인 시기라고 논평.

#### □ 러시아의 대응

-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조치를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내림.
-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을 구금하기 시작.
- 그리고 구금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불법거주를 이유로 타지키스탄으로 추방됨 (참고로 타지키스탄 관계자는 300여명이 러시아로부터 추방되었다고 주장).
- 이에 더해, 러시아 당국은 향후 타지키스탄의 노동자들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행보를 취함.

- 일례로 러시아의 최고 의료책임자인 겐나디 오니스첸코 (Gennady Onischenko)는 많은 타지키스탄 이주자가 HIV 바이러스와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.

#### □ 러시아 대응의 파장 효과 1: 러시아 민족주의

-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조치는 다양한 파장을 일으킴.
- 우선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은 러시아 민족주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음.
- 특히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.
- 실제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러시아의 청년단체는 주 러시아 타지키스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전개.
- 그리고 러시아 정치인들은 연일 조종사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민족주의를 자극.

#### □ 러시아 대응의 파장 효과 2: 타지키스탄의 경제

- 러시아의 조치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이들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은 러시아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긴 상태임.
- 따라서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.
- 이는 타지키스탄 경제에 악역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.
-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수는 100만에 달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재원은 타지키스탄 GDP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함.
-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재 조치는 타지키스탄 GDP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

에 없음.

#### □ 타지키스탄 당국의 대응

- 타지키스탄 당국은 이번 외교전을 통해 러시아가 보유한 ‘비대칭적 정책수단’ (‘asymmetric means’)을 경험했음.
-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‘비대칭적 정책수단’에 대응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타지키스탄은 이번 외교전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조종사를 돌려 썬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- 일례로 타지키스탄 검찰은 법원에 러시아 조종사에 대한 선고가 과도하다며 형량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.

#### □ 총평

- 러시아 조종사를 돌려 썬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외교전은 양국 간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보임.
- 특히 러시아는 자국의 군대를 타지키스탄의 남부 국경에 주둔시키려 하고 있으나 타지키스탄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(참고로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2005년까지 타지키스탄 남부 국경에 주둔해 왔음).
- 러시아가 타지키스탄 남부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슬람 극단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임.
- 하지만 타지키스탄 당국은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반대하고 있음.
- 이번 외교전을 계기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
#### <참고자료>

Alexandra Odynova, “Tajiks May Back Down on Pilot,” *Moscow Times*

(November 16 2011).

Erica Marat, "Russia Punishes Tajikistan by Asymmetric Means," *Eurasia Daily Monitor* (November 17, 2011).

Farangis Najibullah, "Tajiks Caught in Russian Crossfire over Pilot Jailings," *RFE/RL* (November 16, 2011).

Konstantin Parshin, "Tajikistan: Moscow Trying to Send Dushanbe into Nosedive," *Eurasianet* (November 15, 2011).